

요한 1 서 묵상 17  
(9/11/2020, 금)

찬양: 342(395)(너 시험을 당해)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4:1-6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영분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영을 다 믿지 말고 … 분별하라”(1 절). 1 절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은 본문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영적 정체를 분별하라는 것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분별하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잘 살펴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사용되던 금화가 진짜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던 단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영분별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 절에서,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론적 본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는 것과 함께,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도 잘못되게 인도하여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죄도 범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은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3 절)고 말씀했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4 절)라고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긴 이유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요한은 장차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으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미 이겼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영분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좀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단들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내용을 교묘히 왜곡시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아울러, 이단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빼놓아지게 하는 잘못된 세상의 풍조, 드러나지 않는 반하나님적인 경향과 가르침, 그리고 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죄의 요소가 들어 있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5 절).**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5 절 -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가진 또 하나의 영적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대로 믿지 않으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최악된 세상, 최악으로 물든 사람들은 최악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요 10:27 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비록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점을 들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6 절 -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본문은 말세적 현상을 경험하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내가 영적으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분별을 원하는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해 있는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늘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이 세상의 최악된 풍조와 문화와 경향성도 잘 분별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그분을 온전히 좇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적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무질서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확인하며 온전히 좇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커 나감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